

#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

신학박사 조 덕운

[마가복음 4: 30-32]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및 누가복음 등 3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관해 말씀하신 두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두번에 걸쳐 겨자씨가 매우 작은 씨이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크게 성장하여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동지를 틀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가 모든 크리스찬에게 적용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 숨겨진 진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첫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 둘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성장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숙도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 셋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장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비유가 기독교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회는 제 1 세기에 매우 미미한 존재이었지만 크게 성장을 해 왔으며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대륙에 20 억명 이상의 신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매우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잘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용한 큰 존재로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없이 마음이 공허한 상태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래로 우리 인간은 그들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즐겼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없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 핏속에 죄의 유전자가 지난 6 천년 동안 매 세대마다 흐르고 있으며, 그 때문에 부패와 퇴락의 프로세스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한 세대도 도덕적 패퇴와 포악과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원초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죄의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소위 '모태 신앙'을 갖고 태어났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그 부모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더라도 태아적부터 주 예수님의 믿음을 지니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을 받게 되는 과정을 땅이 씨를 받게 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즉, 땅은 우리의 마음 [Heart]과 같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 즉 농부가 있어야 파종이 가능합니다. 농부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전도자들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일을 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리신 큰 사명 [Great Commission]을 받아 여러 나라들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 복음의 씨 뿌리는 일을 해 온 것입니다.

어떤 땅은 씨를 받아 들이기에 너무 딱딱해서 씨가 거기에 떨어졌어도 발아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땅에는 가시 덩굴로 가득하여 씨가 발아되었더라도 그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곧 죽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땅은 하루 종일 음지에 있어서 햇볕을 받지 못하여 씨가 도저히 발아하지 못합니다. 어떤 땅은 너무 매말라 습기가 없으므로 역시 발아의 여건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땅들은 씨가 발아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조건을 갖는 땅의 유형들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흙이 있는 땅이 적절한 햇볕과 빗물을 받게 되면 뿌려진 씨로부터 싹이 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래 땅은 저주를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쉽게 돌맹이와 가시 덩굴과 잡초를 발견합니다. 발아에 최적 조건을 모두 가진 땅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 이처럼 돌이 많고 가시 덩굴이 덮힌 땅들이었습니다. 그 돌들과 가시 덩굴들과 잡초들을 제거해야만 씨를 파종하여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성장한 분이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토양의 유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전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절망과 회한에 빠진다면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가능성을 보십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히 준비된 마음 상태로 복음을 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들이 좋지 않은 상태의 논밭에서 돌맹이들과 잡초와 가시 덩굴을 제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쓴 마음과 회한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딱딱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드럽고 파종에 적합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그 씨가 발아하여 여러분 마음과 인생의 깊은 곳에 뿌리 박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나무처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의심과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와 물질적 탐욕과 쾌락 탐닉의 습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여 훌륭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영혼의 인생에 생명 나무가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생명이 자라기 원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의 영과 사랑과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들어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에 영접한다면 그의 영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 주위 사람들에게 참된 보탬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그림과 반대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피폐되어 황무지 같아서 돌맹이들, 가시덤불, 잡초 등 쓸모 없는 해로운 것들로 가득 차서 내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아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용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지닌 생명체로 성장하여 이 땅을 선하게 관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는 선한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26-28]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겨자씨 비유에서 보는 두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자라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12-15]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화 [聖化: Sanctification]의 목표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히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함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충만한 장성의 수준은 각 성도와 각 교회가 도달해야 할 성장의 목표라고 명백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보아 성령님의 조력에 따라 이루어 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각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주 예수님의 충만한 장성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도달하기 불가능한 목표로 생각될 것입니다. 제가 고교 시절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였을 때에 다음과 같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교훈은 내가 도저히 도달하기에 불가능한 가르침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구약 시대에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추격 당하고 있었던 청년 다윗은 시편 59 장에 표현한 바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시편 59:1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강력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 하거니와, 오 {주}여, 그것은 나의 범법 때문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자신을 예비하오니 깨셔서 나를 도와시고 바라보소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울왕이 악인이었고 다윗은 아무 죄가 없으니 다윗이 사울왕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두번이나 있었지만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는지 이해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마음 속에 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심령을 갖게 되기를,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범이 되도록 하신 목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일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그리스의 고린도 지방에 복음의 씨를 파종했고 초기에 성장하도록 수고 하였고 아폴로가 이어서 사역하였으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장을 가져온 것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교훈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화의 역사를 이루는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는 우리 크리스찬 개인과 목회자와 성령님, 삼자가 협력하여 이루는 팀웍이라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이 기적의 사역을 이루는 데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의 성화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목표를 이루도록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매우 심오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진리를 배워 우리의 신앙을 굳게 수립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화 과정을 거쳐서, 마치 금이 연단 받아 순전하게 됨과 같이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초적 계획이고 뜻이라는 선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13-14]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어린 아이가 한 부모의 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는 이 아이가 매일 잘 먹고 장성하여 어른이 되도록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성장을 위하여 아버지는 부지런히 일해서 식구를 먹여 살리고 어머니는 온 식구를 위해 돌보고 먹이며 씻기고 뒷바라지하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성장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님의 수고에 자녀들은 믿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팀웍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족에 심어주신 관계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고난 이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두번이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26]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행하신 3년반 사역은 제자들을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오순절날 강림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모든 크리스찬의 생에서 주 예수님의 충만한 장성의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키우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섞어 넣은 누룩이 반죽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까지 그 작용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깨알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좋은 땅에 심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기의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어지는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3]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팀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산업 현장에서와 같이 분명한 역할 분담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성화 과정의 각 단계에서 성령님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상호 협력하면서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화 과정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집안 청소’ 작업이라고 에베소 교회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31-32]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은 혹시 다음과 같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을 청소한 후에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선한 것들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 결과는 실패와 회한의 반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실패의 경험, 즉 내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겠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지나 않는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성화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매 단계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서로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팀웍은 자동차 조립 과정처럼 미리 정해진 스펙에 따라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셈블리 라인에서는 한 작업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올 스톱됩니다. 그 잘못을 수정한 후에야 생산 라인이 재개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성화 과정이 것처럼 기계적 작업의 연속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산업 현장과 성도의 성화 과정 간에 가장 큰 차이는 매 단계에 있어서 성도가 하는 노력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점입니다. 성도는 해야 할 일을 성령님과 협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믿음으로 실천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면 성령님께서 그의 노력을 도와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까지도 발생시키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유대 광야로 가셨을 때에, 그리고 그 시험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오실 때까지 성령님과 천사들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1]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마태복음 4:11]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는 동안 성령님과 천사들은 휴가를 떠났을까요?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동안에 엄마들은 마음을 조리며 학교 문 밖에서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언론에서 매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천사들 역시 주님께서 시험 받는 동안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시험이 종료되자 즉시 주님께 와서 허기진 그의 육신에 물과 식량을 공급하시고 공사역의 시작을 하시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겐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바로 몇 시간후에 시작될 큰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피가 섞인 땀을 흘리면서 힘든 기도를 할 때에도 성령님과 천사들이 그의 옆에서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41-44]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날 밤에 제자들의 눈에는 한 천사만 주님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비롯하여 온 하늘의 큰 무리가 우리 주님께서 곧 닥아 올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창세 이전에 미리 수립된 인간 구원 계획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흠 없는 어린 양 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바치는 과업을 잘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온 하늘이 큰 관심으로 주님의 번뇌와 승리 과정을 지켜보고 그분의 승리를 위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있어야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 사함과 구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부분 부모들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 중에서 병에 시달리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족함이 있는 자녀의 경우에 건강한 자녀보다 더욱 큰 사랑으로 돌보게 됩니다. 온 식구들이 핸디캡이 있는 아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사랑을 부어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성화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다른 자녀보다 더 큰 사랑과 도움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곤경에 처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또 기도할 기력도 없을 때에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8: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저의 경험으로 보아 여러분께서 자신의 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도와 묵상과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비밀스러운 기도를 통하여 속 사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 속에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비밀스런 기도 생활을 매일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잘 내고 각종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도 개인의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그 교회에는 껍대기 신도들로 가득한 열매 없는 교회밖에 아닐 것입니다. 생명수의 공급선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각 크리스찬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매일 생명수를 공급 받아 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함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 강 옆에 심어진 생명나무는 또한 성도의 인생에 심어져 성장하여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됨을 보여주는 훌륭한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2:1-2]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세번째 목표는 방금 계시록의 그림과 같이 나무의 성장의 결과로서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 세상에 자신의 악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원래 죄의 씨가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죄의 씨가 성장하거나 마귀가 심은 악의 나무가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악한 사람, 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보다 더 많으며 그들이 이 세상에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어떤 종류의 나무가 그 인생에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17-20]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일까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이 그 삶 속에 맺고 보여주어야 할 바람직한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농촌에서 성장한 분들은 농부들이 어떠한 수고로 작물을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성장하여 결실하기까지 한 여름의 더위와 태풍과 해충들과 가뭄과 기타 여러 악조건을 모두 이기고 가을의 추수의 기쁨을 위하여 농사 일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하나님의 말씀의 햇볕에 자신의 영혼을 매일 노출시키고, 그 말씀의 단비를 흠뻑 흡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고맙게 받아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자기 성화 과정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헌신해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노년한 크리스찬만이 잘 익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나무들은 훌륭한 가지들이 있어도 좋은 과실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직 그리 두텁지 않은 가지에 많은 훌륭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포도나무나 감나무도 많이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주는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기도 하며, 신실한 처자를 만나 거룩한 가정을 꾸려 훌륭한 후손들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결실의 비결은 나이 여하에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과 비밀스런 시간을 보내고 성경 말씀을 탐구하여 진리를 알게 되며 이를 그 생활 안에 믿음으로 실천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의 팀웍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협력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지도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다만 순전한 믿음, 뜨거운 사랑, 그리고 겸손한 자원하는 심령만 제공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돕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을 돕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여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로 물질적인 도움, 물리적인 도움을 간구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먼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밀가루 반죽 속에 섞은 누룩과 매우 작은 겨자씨가 좋은 땅에 심어진 후에 발생하는 성장과 동일한 생명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 생명 성장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 때에 모든 피조물에 심어 놓으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참되고 충실한 자녀가 되고,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수로 영혼을 먹여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성장하여 훌륭한 영적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로 충만한 참된 교회들로 세상의 모든 고을들과 나라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